

위협하는 평양인가, 두려워하는 평양인가?

북한의 도발과 평판 형성*

마월(馬越)** · 구본윤***

본 연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평판 이론을 통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북한의 평판 형성 기회로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평판 형성 행위로 군사도발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은 어떻게 그들의 평판을 형성하는가?',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북한의 대응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강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북한의 대응은 지도자에 따라 상이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토대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북한의 도발은 평판 형성 차원에서 수행되는 계산된 합리적 행위이다. 둘째, 평판 형성은 위협 강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도발을 통해 강경하다는 평판을 형성하고자 하며 실질적 위협에 대해서는 도발을 자제한다. 셋째, 지도자 변수의 영향을 받는데, 김정일 시기에는 수사적 위협을 통한 평판 제고에 그쳤다면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잠재적 위협은 물론 실질적 위협에도 군사도발을 실시함으로써 도발을 통한 평판 제고가 더욱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제어: 북한, 인지, 평판, 도발, 한미 연합군사연습

*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적 문제 해결 연구단' 산하 'Text Mining North Korea Lab'에서 수행했으며, 해당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았습다. 이 연구는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필자들의 개인적인 소견임을 밝힙니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1. 서론

외부의 시선에서 북한은 예측 불허의 대상이다. 특히 안보 혹은 군사 문제에 있어 북한은 예상을 벗어나는 도발적 행태를 반복해 왔다.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하거나 한국과 미국을 향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수사적 위협, 그리고 그간 자행된 도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이는 ‘도발의 순환’으로 일컬어졌으며, 도발은 그들의 정책 선택에 있어 상수이자 일상적 신호로 간주되었다.¹⁾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상당수의 분석은 북한이 불량 국가(rogue state)이며, 도발적 행위도 예측 불가능성 혹은 비합리성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의 도발적 행위 이면을 조명하지 못한 채 그들의 정책결정을 끝없는 수수께끼로 남겨 두게 된다.²⁾ 결국 북한의 도발은 결과론적 현상이 아닌 과정적 수단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으로 평판(reputation)에 주목하였다. 평판은 국가의 행위에 있어 과거와 미래의 상호의존성을 가정한 이론으로 특히 갈등 상황에서 국가가 도발 또는 후퇴를 통해 강하거나 약한 평판을 형성하면 그 평판이 향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판은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등장한 이후 개념적 논쟁과 경험적·실증적 검증을 거치며 일반이론으로 정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론화에 더해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진전되고 있다.³⁾

1) Van Jackson, *Rival Reputations: Coercion and Credibility in US-North Korea Relation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3.

2) Yongho Kim and Yurim Yi, "Security Dilemmas and Signaling Du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Standoff," *Asian Perspective*, Vol.29, No.3(2005), p.74.

3) Robert Jervis, Keren Yarhi-Milo, and Don Casler, "Redefining the Debate Over

본 연구는 북한이 한국, 미국과 적대관계에서 위협과 약속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평판이 그들의 정책결정에 미칠 개연성이 크며, 이를 통해 북한 특유의 도발적 정책결정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평판 연구 경향을 고려할 시 북한에 대한 사례 연구가 평판 형성과 변화 등 메커니즘 규명에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평판 형성의 기회로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평판 형성 행위로 군사도발에 주목하였다. 이후 ‘북한은 어떻게 그들의 평판을 형성하는가?’,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북한의 대응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강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북한의 대응은 지도자에 따라 상이한가?’의 연구 질문에 토대해 북한의 도발을 재조명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평판 차원에서 수행되는 계산된 합리적 행위임을 주장한다.

2장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기존 접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후 평판 이론을 논의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평판 차원에서 수행된다는 가설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4장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함의를 제시한다.

Reputation and Credibility in International Security,” *World Politics*, Vol.73, No.1(2021).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북한 도발에 대한 기존 접근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악의(bad)와 광의(mad)에 기초한다.⁴⁾ 전자는 북한이라는 국가와 지도부가 국제사회 범주의 밖에 존재하며, 국제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접근이다.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은 미국 주도로 형성된 전후 국제질서, 특히 한반도 분단으로 대변되는 동북아 국제체제를 자주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정의롭지 않은 질서(order)로 인식해 왔다.⁵⁾ 현상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현상 타파적 국가목표하에 도전을 실제화했고, 이를 강제할 토대로 물리적 재편의 수단인 도발을 자행했다는 것이다.⁶⁾ 후자인 광의의 해석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골자로 한다. 탈냉전 도래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변화가 북한의 안보 위협 고조와 전략적 지위 약화를 야기하였고, 체제 생존을 위한 노력이 군사력 중심의 정책결정을 낳았다는 전제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남한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고립, 불리한 군사적 균형, 적대 국가들의 포위를 심화시키며 군사

4)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3(2000), p. 597.

5) 김진하, "북한 군사적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수정주의(Revisionism)적 기원," 『국방연구』, 제63권 1호(2020), 4쪽.

6) 우승지, "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2013); 한관수, "탈냉전기 북한 대남도발의 전략적 의도와 행태: 사례분석과 전망," 『전략연구』, 제54호(2012); Sung-Yoon Lee, "North Korea's Revolutionary Unificatio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9, No. 2(2014).

적 모험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⁷⁾ 약의 또는 광의의 해석은 북한이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행위자라는 결론하에 불량국가로 낙인찍었으며 미국 외교정책 커뮤니티의 지배적인 논리로 자리매김했다.⁸⁾ 그러나 북한의 대외행동을 단순히 비합리성이라는 말로 치부한 탓에 북한의 도발적 정책결정이 가진 주요한 특징을 해석하고 분석·예측하는 시도들 또한 점차 고갈되었고 북한을 일종의 암상자(black-box)로 전락시키는 문제를 노출했다.

북한의 도발을 합리적 행위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존재했다. 우선 외부의 시선에서 간과하게 되는 북한의 정책결정 논리 구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찾아내고자 이념, 체제, 역사 등 국내적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의해 ‘자위적 무장력’ 실천 차원에서 도발을 자행하였거나, 항일무장투쟁 시기 경험이 공세적인 측면에 경도된 전략문화를 형성했고 이것이 위기 시 인식구조와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쳐 도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⁹⁾ 또한 북한 체제 성격이 스탈린식 사회주의와 위계·복종의 아시아적 특징이 조합된 사회주의적 조합주의 또는 최고지도자를 최고사령관으로 인민 전체가 유격대원화된 유격대 국가론이라는 구조적 접근을 통해 도발적 행동의 근원을 조명하려는 시도도 전개되었다.¹⁰⁾ 그리고 실증적인 접근으로서

7) Yehezkel Dror, *Crazy States: A Counterconventional Strategic Problem*(Lexington, Mass: Heath Lexington Books, 1971), p.90; Robert E. Harkavy, “Pariah States and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5, No.1(1981).

8) 박상현, “북한 대외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고찰: 약소국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인지심리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2009), 36~38쪽.

9) 황일도,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추출한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Chung-in Moon and Ildo Hwang, “Identity, Supreme Dignity, and North Korea’s External Behavior: A Cultural/Ideational Perspective,” *Korea Observer*, Vol.45, No.1(2014); Daniel A. Pinkston and Phillip C. Saunders, “Seeing North Korea Clearly,” *Survival*, Vol.45, No.3(2003).

도발적 행태에 대한 계량연구도 수행되었다. 관련 연구들은 외부 위협 또는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 인식이 고조되는 시기와 도발적 행태 간 상관관계를 조명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이 단순 남발 및 상수화된 것이 아닌 위협 인식 표출 목적의 일관성 있는 행위임을 규명하였다.¹¹⁾ 이러한 시도들은 기존 비합리성으로 치부했던 북한 행위 형태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는 유의미한 시도이지만, 특정 논리 구조 또는 변수로 인해 도발이 발생했다는 해석에만 그쳐 예측과 대응 논의는 여전히 제한된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북한 도발에 대한 기존 접근은 두 가지 고민을 남긴다. 북한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기존 접근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선 본 연구는 북한을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모든 국가는 최소한의 의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며,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합당한 목표를 추구한다.¹²⁾ 다만 이 과정에서 수단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된 인식체계에 의해 여과되기에 어떤 국가에게 합당한 것이 다른 국가에게는 그렇지 않다.¹³⁾ 북한에게 도발이라는 선택지가 외부의 시각에서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외부와 다른 인식체계를 가진 북한

10)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4), 118~122쪽; Bruce Cumings,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 No. 1(1982).

11) Mason Richey, "Cheap talk, costly talk, crazy talk: patterns in North Korea's English language propaganda," *The Pacific Review*, Vol. 32, No. 4(2019); Lauren Sukin, "Why "Cheap" Threats are Meaningful: Threat Perception and Resolve in North Korean Propaganda,"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48, No. 5(2022); Yongho Kim and Yurim Yi, "Security Dilemmas and Signaling Du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Standoff".

12) 임수호, "불량국가와 확장여지의 실패?: 북한 핵정책에 관한 공격적 군사목적설 재검토," 『한국정치연구』, 제16집 1호(2007), 320쪽.

13) Herbert A. Simon, "Human Nature in Politics: The Dialogue of Psychology with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2(1985).

에게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인 것이다.¹⁴⁾ 북한의 도발이 고유의 인식체계에 따른 합리적 행위임을 가정한 후에는 기존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여 도발에서 관찰되는 일정한 패턴을 추출해냄으로써 의도와 목적, 향후 정책 판단 방향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판 이론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논의

(1) 평판(Reputation)

국제체제가 무정부 상태 아래 약속과 위협으로 역학관계가 구성된다면 점에서 국가의 신뢰성은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자들은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고심해 왔으며 능력, 이해관계 등의 요소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평판 개념이다. 평판은 과거 행위에 기반한 특정 국가의 지속적인 특성이나 성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¹⁵⁾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성을 평가할 때 과거 행위에 토대한 평판을 고려하게 되며, 국가의 행위는 즉흥적인 것

14)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국지 도발 등이 포함된다. 도발은 일상화된 북한의 군사적 행위인데 이를 도발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인 합리와 비합리가 아닌 이미 북한을 악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발을 '경고 또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5) Jonathan Mercer, *Reput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6; Gregory D. Miller, "Hypotheses on Reputation: Alliance Choices and the Shadow of the Past," *Security Studies*, Vol.12, No.3(2003), p.42.

이 아닌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의도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¹⁶⁾ 평판은 과거와 미래의 상호의존성을 가정한다.¹⁷⁾ 국가의 행위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 사건에서 행한 약속, 위협이 미래의 사건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인식(perception)에 영향을 미친다.¹⁸⁾ 따라서 국가는 행위를 통해 특정 신호(signaling)를 보냄으로써 평판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특히 분쟁 상황에서 그러하다.¹⁹⁾ 분쟁은 국제 청중의 이목이 집중되기에 국가들은 분쟁에서의 행위가 향후 자국에게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게 된다. 간단한 논리로 한 국가가 분쟁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양보하고 수용적이라고 간주되는 반면 공세적으로 대응한다면 강경하다고 인식된다. 향후 해당 국가와 갈등을 겪는 국가들은 이를 지표로 도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면 차후 분쟁에서도 적은 희생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해 도전을 시도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면 많은 희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해 도전을 재고하는 것이다.²⁰⁾ 관련해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은 냉전 시기 미국이 6·25 전쟁에 참

16) Dale C. Copeland, "Do Reputations Matter?" *Security Studies*, Vol.7, No.3(1997), pp.55~61; Joshua D. Kertzer, Jonathan Renshon, and Keren Yarhi-Milo, "How Do Observers Assess Resolv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1, No.1(2021), pp.312~313; Dustin H. Tingley and Barbara F. Walter, "The Effect of Repeated Play on Reputation Building: An Experimental Appro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65, No.2(2011).

17) Van Jackson, *Rival Reputations: Coercion and Credibility in US-North Korea Relations*, p.5.

18)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124.

19) 국제정치에서 평판은 한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인식하고 평가하는 바를 뜻한다. 즉, 평판과 신호는 다른 개념이며, 신호는 평판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20) Barbara F. Walter, "Building Reputation: Why Governments Fight Some Separatists but Not Oth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0, No.2(2006), pp.310~321.

전해 3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이나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위기 고조(escalation)를 선택한 것은 단순 개입이 아닌 소련에 대한 신호보내기 과정이었다고 해석한다.²¹⁾ 소련의 전방위적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타 지역에서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하에 강한 평판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²²⁾ 평판의 중요성은 후속 연구에서 경험적으로도 증명되었는데, 과거 분쟁에서 물러선 국가는 이후 군사적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국가 고유 요소라는 점이 밝혀졌다.²³⁾ 이처럼 분쟁에서의 평판은 억제는 상대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점, 위협의 신뢰성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가정하에 국가들이 분쟁 상황에서 더욱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전쟁 위협이라는 단기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강한 평판을 형성함으로써 위협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억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평판의 전략적 효용은 라이벌(rivalry) 관계에서 극대화된다. 양자 관계에서 라이벌은 각 국가가 상대방과 미래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적대감을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²⁴⁾ 이러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협과 약속으로 갈등과 대화 국면을 반복한다. 위협과 약속의 작동은 그 신뢰도에 달려 있으며, 효과적일수록 정책 목표를 달성할 공산이 커진다.²⁵⁾ 위협과 약속

21)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pp.124-125.

22) Gregory D. Miller, "Hypotheses on Reputation: Alliance Choices and the Shadow of the Past," pp.46~47.

23) Alex Weisiger and Keren Yarhi-Milo, "Revisiting Reputation: How Past Actions Matter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69, No.2(2015).

24) William R. Thompson, "Identifying Rivals and Rivalrie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5, No.4(2001), pp.559-562.

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는 평판이 정책결정에 미칠 개연성도 증가한다. 상호작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긍정적 평판을 수립하면 그 혜택을 여러 차례 누릴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판이 형성되면 향후 입게 될 누적 손실이 크다. 특히 라이벌 국가 간의 분쟁은 동일한 현안이나 지역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재발한다는 특성으로 위협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중대 이익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평판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은 분쟁에도 강경하게 대처해 전쟁으로 확전시킬 수 있다는 결의를 보여 줌으로써, 보다 중요한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주저 없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아울러 여타 동등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싸울 것이라는 신호도 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익 침해에 단호히 맞선다는 평판을 세움으로써, 적의 도발에 대한 군사 보복 위협을 높이고 도전을 억제한다.

(2) 평판의 북한 적용 및 가설 도출

북한은 한국, 미국과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장기간의 적대관계에서 북한과 한미는 위협과 약속으로 갈등과 대화 국면을 반복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평판이 정책결정에 미칠 개연성이 증가한다. 강한 평판을 형성한다면 갈등 국면에서는 상대의 도발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협상력 제고에도 유리하다. 북한의 경우 한국, 미국과의 상호작용에서 중대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은 갈등에도 강경하게 대처해 전쟁으로 확전시킬 수 있다는 결의를 보여 줌으로써, 보다

25) 이동선, “양극체제와 비대칭전쟁의 장기화: 베트남전쟁의 이론적 분석,” 『아세안 연구』, 제60권 2호(2017), 430쪽.

중요한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주저 없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강경하다는 평판과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도발적 행위를 선택할 유인이 큰 것이다.

북한이 평판을 고려하는 행위자라면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평판을 형성하고자 할까? 본 연구는 북한의 평판 형성 기회로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주목했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한미가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²⁶⁾ 그러나 대적관계에 놓인 북한의 입장에서 이는 도발적 성격이 강한 자극이자 자극에 대한 반응은 한미가 자신의 태세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고 인식한다.²⁷⁾ 실제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 여러 수사적 위협들을 쏟아 내고 있는데, 이는 북한 또한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이 향후 자신의 위협 신뢰성과 위기 행동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지한 반응이라 볼 수 있다.²⁸⁾ 이처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평판 형성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비단

26) 김동엽,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 공포와 엄포 사이,” 『현대북한연구』, 제19권 2호(2016), 86쪽.

27)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자 ‘핵전쟁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도발’로 규정한다. 김동엽,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 공포와 엄포 사이,” 96쪽;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37: 1982.1~1983.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06쪽.

28)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되기에 주기적인 측면에서 규칙성이 존재하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공개 정보를 통한 제한적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평판 제고 목적의 군사도발을 계획 및 실행하기에 적기인 것이다. 부차적으로 기간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북한 도발 간 상관관계의 이론적 규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평판 이론의 적용은 현상 해석과 연구 공백 해소에 있어 유의미한 시도이다. CSIS, “How Provocative Are U.S.-ROK Exercises?,” <https://beyondparallel.csis.org/do-u-s-rok-exercises-provoke-dprk/>(검색일: 2024년 7월 30일); Jordan Bernhardt and Lauren Sukin,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Crisis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65, No.5(2021), pp.856-859.

수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실제 도발을 통해서도 확전 결의를 과시해 평판을 제고하려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다음의 가설을 도출했다.

[가설 1] 북한은 상시적으로 도발하며,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에는 군사도발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양적인 상관관계 분석 이후에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위협은 어떠한가, 위협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똑같은가 등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강도와 이에 따른 북한의 위협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위협이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위협이 작동하는 강도에 영향을 받는데 강도에 따라 잠재적 위협과 실질적 위협으로 구분되며, 대응 수준 또한 달라진다.²⁹⁾ 북한의 경우에도 한미 연합군사연습이라는 자극에 대해 강경하다는 평판을 제고하고자 도발로 대응할 유인이 크지만 강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실제 병력이 전개되지 않는 등 군사력 현시가 부재해 위협의 정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북한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확전 결의를 과시해 강경하다는 평판을 제고하려 할 것이다. 반면 실제 병력 투입, 전략자산 참가 등 분명한 징후를 수반하여 위협이 구체적이고 확전 개연성이 높다면 실질적 위협

29) 투사되는 위협의 강도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 Barry Buzan, *People, States &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Colchester, UK: EXPR Press, 2008), p.123.

구분	잠재적 위협	실질적 위협
역사적 측면	피침략 경험	
공간적 측면	공간적 근접	
위협의 정체	포괄적	구체적
발생할 개연성	낮은 개연성	높은 개연성

으로 인식해 도발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평판 형성에 있어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강도가 도발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다음의 가설을 세웠다.

[가설 2]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군사도발을 증가시킬 것이며,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군사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지도자 변수 또한 중요하다.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경우 확전 개연성이 낮기에 북한은 도발을 통해 강경한 평판을 제고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확전 개연성이 높은 실질적 위협일 경우 그 대응은 정책결정자인 지도자의 개인적 경험 혹은 지도자를 둘러싼 물리적 요인에 의해 차이가 존재할 공산이 크다. 김정일 시기의 경우 6·25 전쟁에서 미국 참전으로 인해 한반도 공산화에 실패한 김일성의 역사적 경험 지속,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에 포위되었다는 피포위 의식의 심화, 남북한 간 경제력 역전으로 인한 군사력 불균형 등으로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감이 가중되었다.³⁰⁾ 이러한 요인들은 김정일로 하여금 한미 연합군사연습, 특히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시기에 도발을 선택할 경우 한미의 전면 침공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켜 도발적 행위를 자제하게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3] 김정일 시기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군사도발을 증가시킬 것이며,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군사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30) 김동엽,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 공포와 엄포 사이,” 92~94쪽.

김정은 시기는 상이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력의 질량적 확대·강화’를 국가발전전략노선으로 내세웠고 네 차례의 핵실험에 더해 투발 수단 확보에도 전력함으로써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³¹⁾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절대적 억제력을 보장해 주는 무기체계를 획득했다는 것이며, 이는 군사적 역량과 자신감을 급상승시켜 국가전략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³²⁾ 특히 핵 보유 초기에는 핵 옵션에 대한 자신감으로 상대와의 분쟁에 있어 보다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³³⁾ 북한의 경우 핵 보유가 미국이 핵 우위를 점하는 기존의 전략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겠지만, 미국 본토에 핵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이는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시기 도발을 강행하여도 한미가 쉽사리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해 오히려 해당 시기 도발적 행위를 증가시킨다면 강경하다는 평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다.³⁴⁾

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대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 형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32) 김태형,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양국의 핵개발과 안보전략 변화』(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9), 27쪽.

33) Mark S. Bell, “Beyond Emboldenment: How Acquiring Nuclear Weapons Can Chang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40, No.1(2015); Michael Horowi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Conflict: Does Experience Matt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2(2009).

34) 북한은 2022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공표를 통해 핵무기가 작전적 사명을 위해 비핵공격 시에도 선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공세적인 선언 전략을 법제화했다. 이러한 행보는 핵 보유의 자신감에서 강경하다는 평판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데, 선언 전략에서 나아가 실제

[가설 4] 김정은 시기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군사도발을 증가시킬 것이며,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군사도발을 증가시킬 것이다.

3. 데이터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북한의 도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북한의 도발을 설정하였다. 한미 연합군사연습 강도에 따른 북한 도발의 빈도 추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 기간 내 월간 군사도발 횟수 총합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관련 자료는 CSIS(CSIS Beyond Parallel)에서 제공하는 북한 군사도발 데이터베이스(Database: North Korean Provocations)를 사용하였다.³⁵⁾ 해당 데이터는 1953년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등을 포함한 총 398회의 군사도발 행위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이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평판 형성을 추론하고자 1) 한미 연합군사연습 여부, 2) 지휘소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 3) 야외기동연습(FTX: Field Training Exercise)에 대한 분석을 모두 실시하였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지휘소연습인 포커스 렌즈(Focus Lens)가 최초 실시된 이후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도발을 통해서도 의도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35) CSIS, “Database: North Korean Provocations,” <https://beyondparallel.csis.org/database-north-korean-provocations/>(검색일: 2024년 1월 30일).

가 창설되고, 이듬해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가 체결되며 제도화되었다.³⁶⁾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통상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연습으로 구분된다. 지휘소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상황을 부여해 지휘소 이동·운용, 지휘·참조 절차, 작전계획 적용 등 각급 지휘관과 참모, 작전·통신 요원들의 지휘 통제와 대응 조치를 검증하는 목적이다. 1954년 유엔사·주한미군사 주관하에 을지포커스렌즈(UFL: Ulchi Focus Lens), 2022년 을지프리덤실드(UFS: Ulchi Freedom Shield)로 수행되고 있다. 야외기동연습은 실제 병력이 참가하는 기동훈련으로서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미 본토의 증원전력을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절차부터 반격 및 복귀까지 해당 범주의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목적이다. 1960~1970년대 소규모 야외기동연습이 수행되다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팀 스피리트(TS: Team Spirit)가 연례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2002~2007년 전시 증원(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Integration)/독수리(FE: Foal Eagle), 2008~2018년 키 리졸브(KR: Key Resolve)/FE,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등이 수행되었다. 지휘소연습은 실제 병력 투입 등 군사력 현시가 미비 또는 부재해 위협의 정체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확산 개연성이 낮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된다. 반면 야외기동연습은 실제 병력 투입과 전략자산 참가 등의 군사력 현시가 언제든지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즉각적 일격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확산 개연성이 높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여부의 경우 분석 기간 내 월간 기준으로 연습이 진행된다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강도를 구분하고자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연

36) 윤안국·장영호·이민우·오태호,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발전방향 연구,” 『국방정책 연구』, 제37권 4호(2022), 72쪽; Jordan Bernhardt and Lauren Sukin,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Crisis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pp.865-866.

습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³⁷⁾ 분석 기간 내 월간 기준으로 지휘소연습만 진행된다면 1로,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다. 야외기동연습의 경우 야외기동연습만 진행되거나 야외기동연습과 지휘소연습이 모두 진행된다면 1로, 아니면 0으로 처리하였다. 분석을 위해 하버드 데이터버스(Harvard Dataverse)의 연합군사연습 데이터세트(Joint Military Exercises Dataset),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국방편년사, 한미 연합군사연습 관련 선행연구, 언론보도를 종합한 후 교차 검증하여 한미 연합군사연습 데이터베이스(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 Database)를 구축 및 활용하였다.³⁸⁾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북한의 도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이외에 북한의 군사도발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적 요소들을 통제하였다. 우선 국내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로 북한의 권력승계를 통제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 당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후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당 총비서로 취임하며 권력승계를 매듭지었다.³⁹⁾ 김정일의 경우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당 대표

37)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구분 기준과 관련하여 군사보안 등의 이유로 연습별 세부 내용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에서 코딩을 더욱 구체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연습으로 구분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Buzan(2008)의 위협 강도 구분을 고려하면 군사력 현시가 부족한 지휘소연습을 잠재적 위협으로, 실제 병력 투입과 전략자산 참가 등으로 위협의 정체가 구체적인 야외기동연습을 실질적 위협으로 해석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8) 국방부, 『국방편년사: 1998~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국방부, 『국방편년사: 2003~2007』(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국방부, 『국방편년사: 2008~201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윤안국·안경모,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 군사적 위협 변수의 재검토,” 『국방정책연구』, 제34권 1호(2018); Jordan Bernhardt, “Joint Military Exercises Dataset,” <https://doi.org/10.7910/DVN/HXQFHU>(검색일: 2024년 1월 30일). 언론보도는 KBS 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BBC의 한미 연합군사연습 관련 보도를 참조하였다.

사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권력승계를 완료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와 현안 보고에서는 이러한 권력승계와 북한의 도발이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정일은 도발을 통해 군권 장악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김정은 또한 김정일에서 자신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도발을 통해 군사적 자질을 과시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자신의 입지와 이미지 제고를 의도했다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을 고려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기간을 1994년 7월부터 1998년 9월까지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기간을 2010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로 설정하여 통제하였다. 국내적 요인으로 경제 변수 또한 통제하였다. 북한의 월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 획득이 제한됨에도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는 북한 경제의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 루트 중 하나이다. 특히 경제난 등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시기에 이를 타개하고자 국제분쟁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의 수출 및 수입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⁴¹⁾

외부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는 주로 적대국인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 후견국인 중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관련

39) Yongho Kim, *North Korean Foreign Policy: Security Dilemma and Succession* (Lanham: Lexington Books, 2010), p.9.

40) 강정일, “권위주의 체제이론으로 본 북한 권력승계 과정과 특징,”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2023), 276쪽.

41) Jack S. Levy, “Domestic Politics and War,” in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eds.),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79~99;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013712>(검색일: 2024년 1월 30일).

변수들이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여당의 정치적 이념으로 측정할 수 있다.⁴²⁾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보수 여당, 미국의 보수 여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의 보수 여당 변수의 경우 한국에서 집권한 여당의 정치적 이념이 보수적이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고, 미국의 보수 여당 변수도 같은 방법하에 이분변수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적대국인 한국과 미국의 선거가 북한의 도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과 미국의 선거 시기를 통제하였다. 한편 후견국인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북한의 도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북한은 북중관계가 악화된 기간에 도발을 감행하고 북중관계가 개선되면 도발을 자제한다는 것인데,⁴³⁾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해 북중관계의 변화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1950년대 이래 북중 양국은 회담을 통해 양자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기에 북중관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북중 고위급회담을 설정하였다. 관련해 CSIS (CSIS Beyond Parallel)에서 제공하는 북중 고위급회담 데이터(China-North Korea High Level Visits Since 1953)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기간 내 월간 기준으로 북중 고위급회담의 횟수 총합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⁴⁴⁾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해 대북제재 강도 또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글로벌 제재 데이터베이스(GSDB: Global Sanctions Database)를 사용하되 제재 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새로운 제재를 개시할 때마다 +1로 코딩하

42) 성기은·황원준·신진,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1955-2012,” 『전략연구』, 제28권 2호(2021), 198쪽.

43) Yongjae Lee, “China’s Diplomatic Leverage on North Korean Provocations: Effect of High-Level Meeting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n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est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3, No. 3(2023).

44) CSIS, “China-North Korea High Level Visits Since 1953,” <https://beyondparallel.csis.org/china-dprk-high-level-visits-since-1953-2/>(검색일: 2024년 1월 30일).

〈표 1〉 기술 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북한의 군사도발	354	.734	1.425	0	12
한미연합군사연습 총합	354	.249	.433	0	1
지휘소연습_CPX	354	.209	.407	0	1
야외기동연습_FTX	354	.124	.33	0	1
북중 고위급회담	354	.249	.433	0	1
대북제재 강도	354	177.5	102.335	1	354
한국 선거	354	.037	.188	0	1
미국 선거	354	.042	.202	0	1
한국 보수 여당	354	.497	.501	0	1
미국 보수 여당	354	.412	.493	0	1
북한 권력승계	354	.201	.401	0	1
북한 수출(루트)	354	10.444	4.149	0	19,765
북한 수입(루트)	354	13,976	5,009	0	24,240

였다.⁴⁵⁾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김정일 집권 이후 1994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데이터의 구조를 고려해 보통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연습 진행 전후 1개월 동안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통제하고자 종속변수에 대해 시차(1-month lagged)를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변수들의 기술 통계는 〈표 1〉과 같다.

45) Global Sanctions Database, "The Global Sanction Data Base (GSDB)," <https://www.globalsanctionsdatabase.com/>(검색일: 2024년 1월 30일).

4. 분석 결과 및 해석

〈표 2〉는 1994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체 분석 기간 내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에 미치는 결과이다. 모형 (1)은

〈표 2〉 한미 연합군사연습 시기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1994.7.~2023.12.)

변수	(1) 북한의 군사도발	(2) 북한의 군사도발	(3) 북한의 군사도발
한미연합군사연습 여부	0.302 (0.171)		
지휘소연습_CPX		0.388** (0.186)	
야외기동연습_FTX			0.393 (0.264)
북중 고위급회담	-0.302*** (0.119)	-0.301** (0.119)	-0.305** (0.120)
대북경제 강도	0.00326*** (0.000842)	0.00310*** (0.000830)	0.00323*** (0.000840)
한국 선거	0.462 (0.336)	0.447 (0.337)	0.469 (0.344)
미국 선거	0.369 (0.689)	0.457 (0.688)	0.316 (0.701)
한국 보수 여당	0.719*** (0.243)	0.718*** (0.243)	0.688*** (0.239)
미국 보수 여당	-0.325 (0.217)	-0.345 (0.215)	-0.343 (0.213)
북한 권력승계	-0.526*** (0.187)	-0.536*** (0.188)	-0.519*** (0.188)
북한 수입(루트)	0.0185 (0.0313)	0.0184 (0.0312)	0.0186 (0.0310)
북한 수출(루트)	-0.0893*** (0.0424)	-0.0920** (0.0426)	-0.0891** (0.0422)
Constant	0.678*** (0.237)	0.738*** (0.230)	0.732*** (0.229)
Observations	354	354	354
R-squared	0.206	0.209	0.205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한미 연합군사연습 진행 여부에 대한 분석, 모형 (2)는 지휘소연습에 대한 분석, 모형 (3)은 야외기동연습에 대한 분석이다. 결정계수(R-squared)를 보았을 때, 각 모형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 변화에 대한 설명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형 (1)에서 한미 연합군사연습 진행 여부가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 변화를 추정하는 데 있어 한미 연합군사연습 변수가 핵심적으로 고려되는데 실제 통계분석 결과는 연합군사연습 진행 여부가 군사도발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에 군사도발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는 첫 번째 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 양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기엔 연합군사연습 강도에 따른 북한의 인식과 행위 변화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모형 (2)와 모형 (3)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강도에 따른 북한의 반응을 보여 준다. 모형 (2)는 지휘소연습이 진행되면 북한의 군사도발이 증가함을, 모형 (3)은 야외기동연습과 군사도발 사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인다. 우선 지휘소연습 시 도발 증가는 북한이 실제 지휘소연습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여 평판 제고를 위한 도발 적기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야외기동연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것이 군사도발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기에 해당 연습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해 군사도발을 자제했다는 추론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모형 (1)과 비교하여 모형 (2)와 모형 (3)의 분석 결과는 양적인 상관관계를 넘어 한미 연합군사연습 강도에 따른 분석이 적실함을 시사하며,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군사도발을 증가시킬 것이며,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군사도발을 자제할 것이다’는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국내적 요인으로 북한의 권력승계는 세 모형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

계를 보인다. 북한의 도발이 정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실제 통계분석 결과 권력승계 기간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실제 데이터의 수(N)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는 후계자가 일정 수준 승계 절차에 안착한다면 권력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외 정세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실제 도발을 회피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한 변수인 수출이 군사도발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권위주의 국가의 정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는 경제위기이며, 북한 또한 정권 불안정성이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는 경제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막아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에서 도발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⁴⁶⁾ 이를 고려해 보면 북한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 경제 상황이 일정 수준 개선되고, 국제사회의 교류 또한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로 인해 도발이 감소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외부적 요인으로 강조되는 대북제재에 대한 분석 결과, 세 모형 모두 제재가 누적될수록 북한의 도발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불만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불만은 국제사회를 향해 협력보다 갈등을 더욱 많이 일으키는 공세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⁴⁷⁾ 한국과 미국의 선거는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 여당의 정치적 이념과 북한의 군사도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

46) 박신영·남궁영, "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1호(2019), 15쪽.

47) 마윌·이화준, "대북제재의 북한 장마당에 대한 영향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26권 1호(2023), 159쪽.

보수적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할 경우 군사도발이 증가하는 것인데, 이는 새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의 효과성이 미비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의도인 동시에 자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의도이다. 그리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북중관계의 변화 또한 북한의 도발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위급회담이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는 냉각기와 비교했을 때 고위급회담 성사로 북중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3〉은 지도자 변수가 한미 연합군사연습 시기 북한의 군사도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 (1)과 (2)는 김정일 시기, 모형 (3)과 (4)는 김정은 시기에 대한 분석이다. 모형 (1)과 (3)은 지휘소연습에 대한 분석, 모형 (2)와 (4)는 야외기동연습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3〉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 시기 지휘소연습, 야외기동연습과 북한의 군사도발 사이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김정일 시기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군사도발을 증가시킬 것이며,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군사도발을 자제할 것이다’는 세 번째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김정일 시기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시기마다 당국 차원에서 비난을 전개하였고 특히 야외기동연습 등 강도가 실질적 위협으로 격상될 시 최고사령부, 국방위원회 등 상위 군사기관들이 전담해 경고성 담화를 발표하거나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하기도 하였다.⁴⁸⁾ 그러나 통계분석의 결과 실제 도발로는 이어지지 않았기에 김정일 시기 북한의 평판 제고는 수사적(rhetoric) 위협에만 그쳤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수 중 북중 고위급회담 변수 외에는 군사도발에 대해

48) 윤안국·안경모,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 군사적 위협 변수의 재검토,” 77~80쪽.

〈표 3〉 지도자 변수가 한미 연합군사연습 시기 북한의 군사도발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2)	(3)	(4)
	김정일 시기		김정은 시기	
지휘소연습_CPX	-0.00751 (0.122)		0.876** (0.396)	
야외기동연습_FTX		-0.0964 (0.148)		1.461** (0.613)
북중 고위급회담	-0.228 (0.121)	-0.228* (0.120)	-0.336 (0.339)	-0.305 (0.386)
대북제재 강도	0.00313 (0.00252)	0.00315 (0.00251)	0.0348*** (0.00925)	0.0390*** (0.00939)
한국 선거	0.139 (0.404)	0.127 (0.408)	0.843 (0.549)	0.696 (0.623)
미국 선거	0.128 (0.264)	0.160 (0.267)	0.774 (1.396)	0.742 (1.397)
한국 보수 여당	0.201 (0.152)	0.207 (0.155)	1.602** (0.664)	1.346** (0.656)
미국 보수 여당	-0.149 (0.169)	-0.154 (0.170)	-0.370 (0.472)	-0.518 (0.459)
북한 권력승계	-0.0674 (0.180)	-0.0758 (0.180)	-0.0448 (0.443)	-0.242 (0.547)
북한 수입(루트)	-0.00444 (0.0247)	-0.00665 (0.0249)	0.147** (0.0600)	0.152** (0.0586)
북한 수출(루트)	-0.0618 (0.0430)	-0.0602 (0.0427)	-0.0598 (0.0872)	-0.0319 (0.0893)
Constant	0.820*** (0.310)	0.846*** (0.315)	-10.95*** (3.141)	-12.24*** (3.212)
Observations	209	209	145	145
R-squared	0.054	0.056	0.301	0.320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고위급회담은 야외기동연습으로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 북한의 군사도발 감소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상관관계의 신뢰도가 비교적으로 낮다.

김정은 시기의 경우 지휘소연습, 야외기동연습과 북한의 군사도발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3>의 모형 (3)과 (4)는 지휘소 연습은 물론 야외기동연습이 진행되어도 북한의 군사도발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특히 지휘소연습과 비교했을 때 야외기동연습이 더 높은 값을 가지는데, 야외기동연습이 진행되면 더욱 많은 도발을 했음을 의미한다. 결과는 '김정은 시기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군사도발을 증가시킬 것이며,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군사도발을 증가시킬 것이다'는 네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지휘소연습에 더해 실제병력 투입과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인해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야외기동연습 시에는 더욱 빈번한 도발로 대응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앞선 분석 결과는 북한은 잠재적 위협에 대해 도발로 대응하고 실질적 위협에 대해서는 도발을 자제한다는 점, 김정일 시기에 들어서는 잠재적·실질적 위협 모두에 대해 실제 행위보다는 수사적 차원의 대응을 전개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평판 메커니즘에 변화가 관찰된 것인데, 도발을 통한 평판 제고에 더욱 공세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상황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이는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국내적 요인으로 수입과 군사도발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외의 변수들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논의가 미비한 사안이나, 북한의 무역적자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역수치 데이터에서 북한의 연간 대외수입은 항상 수출을 초과한다. 북한의 대외 수입은 주요 상대국들이 제공하는 대외 원조로 충당되며, 중요 품목 중 하나가 석유이다.⁴⁹⁾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군사도발에 있어 원료 등 엄

49) 신범철·이석기·김영훈 외,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에서의 북한경제와 한국경제,”

청난 재정적 수요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대외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수입이 증가되면 도발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외부 요인으로 대북제재 강도, 한국 보수 여당과 북한의 군사도발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한미 연합군사연습 진행 전후 1개월 동안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통제하고자 종속변수에 대해 시차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전체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변수가 없다. 즉, 한미 연합군사연습으로 인한 북한 도발의 예방 혹은 지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도발을 결과론적 현상이 아닌 고유의 인식체계에서 선택된 합리적 수단으로 가정하고, 인식체계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으로 평판 이론을 적용했다. 국가 간 갈등에서 강하거나 약한 평판을 형성하면 이것이 향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평판의 기본적 논리에 토대해 북한의 평판 형성 기회로서 한미 연합군사연습, 평판 형성 행위로서 군사도발에 주목하였다. 이후 한미 연합군사연습 유무와 강도, 북한의 지도자 변수 등을 고려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북한 특유의 도발적 정책결정에 대한 해석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우선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 전체 분석 기간 내 북한은 잠

『KDI 북한경제리뷰』, 2013/04(2013), 104쪽; 이석·김두열·신석하 외,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KDI 한국개발연구원(2021), 53쪽.

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도발을 통해 강경하다는 평판을 형성하고자 하며, 실질적 위협에 대해서는 도발을 자제한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지휘소연습으로 진행될 경우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해당 시기를 평판 형성을 위한 도발 적기로 판단했다. 반면 군사력이 현시되는 야외기동연습으로 진행되면 이를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확산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지도자 변수에 따른 평판 메커니즘 변화가 존재한다. 김정일 시기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시기마다 경고성 담화를 발표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하며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통계분석 결과, 잠재적 위협과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될 경우 모두 군사도발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김정일 시기 북한의 평판 형성은 수사적 위협 위주의 수세적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잠재적 위협은 물론 실질적 위협일 경우에도 군사도발을 실시하며, 실질적 위협에 대해서는 더욱 빈번하게 도발한다. 김정은 시기 도발을 통한 평판 제고가 더욱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평판을 통해 갈등 국면에서는 한미의 군사력 우위를 상쇄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발언력과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간 상당수의 연구는 북한을 비합리적인 국가로 치부해 왔으며, 합리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논의의 경우에도 북한의 폐쇄성으로 폭넓은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었기에 그들의 정책결정을 암상자 또는 수수께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으로 평판 이론을 적용하고, 북한의 인식체계와 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북한 특유의 도발적 정책결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물론 북한의 도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정책결정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 국제정치 또는 타 분야에서 일반화된 이론으로 투영하려는 시도 또는 다양한 방법론과 데이터를

활용한 접근이 모두 필요함을 시사한다.

북한이 전통적인 군사도발에 더해 회색지대(gray zone) 전술과 같은 비전통적 도발을 선택하며 위기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목격되는 당장의 현상에만 치우쳐 도발을 비합리적 또는 비정상적 행위로 단정 짓는다면 그들의 의도는 끝없는 수수께끼로 남겨 두며,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비합리적 수단을 통해 얻고자 했던 합리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위협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를 풀어내야 한다. 이는 오롯이 연구자의 몫이며, 그 일원으로서 다음의 결론을 던진다. 결국 북한의 도발은 합리적인 행위이자, 평판 형성의 목적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이다. 북한은 이렇게 그들의 평판을 만들어 나간다.

■ 투고: 2024.06.30. / 수정: 2024.08.01. / 채택: 2024.08.06.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저서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37: 1982.1~1983.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 신문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대상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국방부, 『국방편년사: 1998~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_____, 『국방편년사: 2003~2007』(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_____, 『국방편년사: 2008~201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김태형,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양국의 핵개발과 안보전략 변화』(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9).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4).

2) 논문

강정일, “권위주의 체제이론으로 본 북한 권력승계 과정과 특징,”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2023), 259~289쪽.

김동엽,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 공포와 엄포 사이,” 『현대북한연구』, 제19권 2호(2016), 83~112쪽.

김진하, “북한 군사적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수정주의(Revisionism)적 기

- 원, 『국방연구』, 제63권 1호(2020), 1~25쪽.
- 박상현, “북한 대외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고찰: 약소국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인지심리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2009), 33~61쪽.
- 박신영·남궁영, “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1호(2019), 3~38쪽.
- 성기은·황원준·신건,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1955-2012,” 『전략연구』, 제28권 2호(2021), 189~218쪽.
- 신범철·이석기·김영훈·정우진·김중호·이석·조병구,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에서의 북한경제와 한국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13/04(2013).
- 우승지, “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2013), 165~190쪽.
- 윤안국, 안경모,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 군사적 위협 변수의 재검토,” 『국방정책연구』, 제34권 1호(2018), 71~111쪽.
- 윤안국·장영호·이민우·오탈호,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발전방향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7권 4호(2022), 71~107쪽.
- 이동선, “양극체제와 비대칭전쟁의 장기화: 베트남전쟁의 이론적 분석,”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2017), 422~455쪽.
- 이석·김두얼·신석하·장형수·이종규·헤이젤 스미스·김규철·빌 브라운·한바란·최지영,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KDI 한국개발연구원(2021).
- 임수호, “불량국가와 확장여지의 실패?: 북한 핵정책에 관한 공격적 군사목적설 재검토,” 『한국정치연구』, 제16집 1호(2007), 309~340쪽.
- 한관수, “탈냉전기 북한 대남도발의 전략적 의도와 행태: 사례분석과 전망,” 『전략연구』, 제54호(2012), 33~64쪽.
- 황일도,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추출한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117~145쪽.

3. 국외 자료

1) 단행본

- Buzan, Barry, *People, States &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 - Cold War Era* (Colchester, UK: EXPR Press, 2008).
- Dror, Yehzekel, *Crazy States: A Counterconventional Strategic Problem* (Lexington,

Mass: Heath Lexington Books, 1971).

Jackson, Van, *Rival Reputations: Coercion and Credibility in US-North Korea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Kim, Yongho, *North Korean Foreign Policy: Security Dilemma and Succession* (Lanham: Lexington Books, 2010).

Levy, Jack S., "Domestic Politics and War," in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eds.),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Mercer, Jonathan, *Reput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2) 논문

Bell, Mark S., "Beyond Emboldenment: How Acquiring Nuclear Weapons Can Chang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40, No.1(2015), pp.87~119.

Bernhardt, Jordan and Lauren Sukin,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Crisis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65, No.5(2021), pp.855~888.

Copeland, Dale C., "Do Reputations Matter," *Security Studies*, Vol.7, No.1(1997), pp.33~71.

Cummings, Bruce,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4, No.1(1982), pp.269~294.

Harkavy, Robert E., "Pariah States and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5, No.1(1981), pp.135~163.

Horowitz, Michael,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Conflict: Does Experience Matt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3, No.2(2009), pp.234~257.

Jervis, Robert, Keren Yarhi-Milo and Don Casler, "Redefining the Debate Over Reputation and Credibility in International Security," *World Politics*, Vol.73, No.1(2021), pp.167~203.

- Kertzer, Joshua D., Jonathan Renshon and Keren Yarhi-Milo, "How Do Observers Assess Resolv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1, No.1(2021), pp.308~330.
- Kim, Yongho and Yurim Yi, "Security Dilemmas and Signaling Du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Standoff," *Asian Perspective*, Vol.29, No.3(2005), pp.73~97.
- Lee, Sung-Yoon, "North Korea's Revolutionary Unificatio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19, No.2(2014), pp.121~137.
- Lee, Yongjae, "China's Diplomatic Leverage on North Korean Provocations: Effect of High-Level Meeting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n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est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23, No.3(2023), pp.517~546.
- Miller, Gregory D., "Hypotheses on Reputation: Alliance Choices and the Shadow of the Past," *Security Studies*, Vol.12, No.3(2003), pp.40~78.
- Moon, Chung-in and Ildo Hwang, "Identity, Supreme Dignity, and North Korea's External Behavior: A Cultural/Ideational Perspective," *Korea Observer*, Vol.45, No.1(2014), pp.1~37.
- Pinkston, Daniel A. and Phillip C. Saunders, "Seeing North Korea Clearly," *Survival*, Vol.45, No.3(2003), pp.79~102.
- Richey, Mason, "Cheap talk, costly talk, crazy talk: patterns in North Korea's English language propaganda," *The Pacific Review*, Vol.32, No.4(2019), pp.537~571.
- Simon, Herbert A., "Human Nature in Politics: The Dialogue of Psychology with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9, No.2(1985), pp.293~304.
- Smith, Hazel,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76, No.3(2000), pp.593~617.
- Sukin, Lauren, "Why 'Cheap' Threats Are Meaningful: Threat Perception and Resolve in North Korean Propaganda,"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48, No.5(2022), pp.936~967.
- Thompson, William R., "Identifying Rivals and Rivalrie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5, No.4(2001), pp.557~586.

Tingley, Dustin H. and Barbara F. Walter, "The Effect of Repeated Play on Reputation Building: An Experimental Appro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65, No.2(2011), pp.343~365.

Walter, Barbara F., "Building Reputation: Why Governments Fight Some Separatists but Not Oth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0, No.2(2006), pp.313~330.

Weisiger, Alex and Keren Yarhi-Milo, "Revisiting Reputation: How Past Actions Matter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69, No.2(2015), pp.473~495.

3) 기타 자료

Bernhardt, Jordan, "Joint Military Exercises Dataset," <https://doi.org/10.7910/DVN/HXQFHU>(검색일: 2024년 1월 30일).

CSIS, "China-North Korea High Level Visits Since 1953," <https://beyondparallel.csis.org/china-dprk-high-level-visits-since-1953-2/>(검색일: 2024년 1월 30일).

_____, "Database: North Korean Provocations," <https://beyondparallel.csis.org/database-north-korean-provocations/>(검색일: 2024년 1월 30일).

_____, "How Provocative Are U.S.-ROK Exercises?," <https://beyondparallel.csis.org/do-u-s-rok-exercises-provoke-dprk/>(검색일: 2024년 7월 30일).

Global Sanctions Database, "The Global Sanction Data Base (GSDB)," <https://www.globalsanctionsdatabase.com/>(검색일: 2024년 1월 30일).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013712>(검색일: 2024년 1월 30일).

A Threatening Pyongyang or an Afraid Pyongyang?

North Korea's Reputation through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Ma, Yue(Yonsei University) ·

Gu, Bonyun(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This study uses reputation theory to examine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study considers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s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build reputation and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s acts of reputation formatio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several research questions: 'How does North Korea build its reputation?'; 'How does North Korea respond to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Does North Korea's response differ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Does North Korea's response differ depending on the leader?'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e following. First,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calculated and rational acts performed in terms of reputation formation. Second, reputation form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the threat. We also find that, for potential threats,

North Korea seeks to form a reputation of being strong through provocations, and for actual threats, it refrains from provocations. Third, responses differ under different leadership. Under Kim Jong Il, North Korea's reputation was only improved by rhetorical threats; under Kim Jong Un, reputation enhancement through provocations has become more aggressive as military provocations are carried out in response to not only potential threats but also actual threats.

Keywords: North Korea, perception, reputation, provocation,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